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 다양성 속의 통일을 찾아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3

## 이주로 인한 다양성과 정책적 대응 그리고 환대의 윤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다양성 속의 통일을 찾아서

##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양성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실현하기 어렵다. 이 어려운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합창이라고 할 수 있다. 합창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각기 다른 파트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때로는 파트 간에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곡에 긴장감을 주고 다시 화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때 지휘자는 거의 전능한 권한을 가지는데, 모든 단원은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박자와 강약을 맞춰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

합창보다 다양성과 복잡성이 한 단계 높은 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생각할 때 부부간에도 성격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 차이가 더 크다. 가장의 권한이 크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만일 그

렇게 하려고 하면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길 뿐이다.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행사할 때 가정이 화목해진다.

대학교를 생각하면 복잡성과 다양성이 훨씬 커진다. 고려대학교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합쳐서 총 23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그 중 문과대학 내에는 14개의 학과가 있고, 한 학과 내에는 10명 이상의 교수들이 있기도 하다.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진 만큼 구성원들의 특성과 욕구는 다양하고 이것을 조정하고 통일하기는 더 어렵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워십(followership)을 이끌어 낸다.

국가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지역, 인종·종족, 계층, 언어, 종교, 이념 등으로 더욱 분화되고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 특히 인종, 종족, 언어, 종교, 역사가 다른 집단들이 어찌다 한 국가로 묶이게 되고 더욱이 집단 간 불평등이 심할 경우 분열하려는 힘은 더 크게 작용한다. 만일 분리·독립하려는 소수집단을 다수집단이 힘으로 억압하려고만 하면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국가 지도자의 포용적 리더십이 통합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국제연합(UN)과 같은 세계적인 기구는 사람이 만든 조직으로서 가장 광범위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실효적인 명령 체계가 서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어도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국제연합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자국의 이해에 반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을 무력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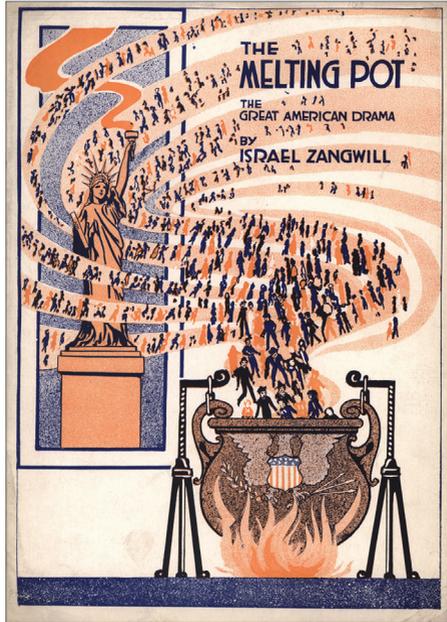
앞의 예들을 살펴보면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과 다양성이 커지면 조직 내의 일치성과 통일성이 줄어들고,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져서 결국 분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다양성 속의 통일을 찾는 방안들

### 동화론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다원화 사회에서 질서와 통일을 이루는 방안 가운데 전통적으로 사용된 이론이 동화론(assimilation theory)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이민자와 소수자들은 지배 집단의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대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다. 미국에서는 ‘멜팅팟’(melting pot, 용광로)이라는 은유(metaphor)가 미국에 이민 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메리칸’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는 국민으로 변한다고 설명한다<sup>1)</sup>.

1) Park, R. E.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The Free Press, 403.



멜팅팟  
출처: 아이오와 대학 도서관 특별 컬렉션 부서<sup>2)</sup>

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Meltingpot1.jpg>

## 다문화주의

동화론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인과 같은 백인계 이민자들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동화되었지만, 흑인·아시안·히스패닉 등과 같은 유색인종들은 아무리 많은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백인에게 예속되거나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 인종 집단은 1950년대부터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백인, 남성, 중상층, 기독교에 기반한 기득권층에 도전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및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흑인 민권운동이 흑인 문화와 그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문화주의로 발전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60년대에 퀘벡주의 프랑스계 사람들이 영국계의 지배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을 전개했다. 자칫 두 개의 국가로 분열할 수 있는 위기에서 당시 총리였던 피에르 트뤼도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영어와 함께 공식어로 지정하고, 퀘벡주 내 프랑스계의 문화 자치를 보장하면서 하나의 캐나다를 유지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트뤼도 자신이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계 부친과 영국

계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리고 몬트리올대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이런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장 과정이 트뤼도로 하 여금 다문화주의를 통해 캐나다를 통일된 국가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샐러드 볼(salad bowl)’에 비유된다. 샐러드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채소들이 고유한 색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서 질서와 통일을 이뤄 간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에 관한 쉬운 설명이다. 서양 요리에 샐러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비빔밥이 있다. 쌀밥에 고기와 여러 나물을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비비면 개별 재료의 식감이 남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요리가 생겨난다.

다문화주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요소들을 종합해서 정의하면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념과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리고

---

3) 윤인진. (2013).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파주: 한울.



샐러드 볼  
출처: 프리픽<sup>4)</sup>



비빔밥  
출처:문화체육관광부<sup>5)</sup>

4) <http://www.freepik.com>

5) [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View.jsp?pSeq=2177](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View.jsp?pSeq=2177)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문화 다양성의 인정과 보호),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기회 평등 보장),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여(문화 다양성 증진), 궁극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unity in diversity)을 추구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잇달아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는 주장을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0년에 “독일이 추구해 온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2011년에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2011년에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다문화주의가 문화 상대주의에 빠져 이민자와 소수 종족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데 그치고, 이들이 거주국 문화를 학습하고 수용하지 않게 하여 거주국에 통합하기보다는 고립과 분열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 시민적 통합

실패했다고 여겨진 다문화주의의 대안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서구 유럽 국가에서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이 부상하였다. 이것은 이민자와 소수 종족 집단이 거주국의 언어를 학습하고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류 사회의 기회 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sup>6)</sup>.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구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권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이민자와 소수 종족 집단이 주류 사회의 기회 구조(교육·취업·주거 등)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회 통제와 통합만을 강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

6) Joppke, C. (2017). Civic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Three Debates. *West European Politics* 40(6), 1153-1176.

ism)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다문화주의의 ‘다(多, multi)’라는 접두어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상호문화주의의 ‘상호(inter)’라는 접두어는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고 통합을 지향한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집단 간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고 문화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자와 소수 종족 집단들이 거주국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해서 결국은 사회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서 잘 드러나듯이 상호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려 한다. 여기서 문화 간 의사소통과 상호 관계가 핵심 개념이다. 상호 주관성에 기반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문화 다양성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게 자원과 힘이 되게끔 하자는 것이다<sup>7)</sup>.

상호문화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도계 독일 철학자 람 아다르 말(Ram Adhar Mall)<sup>8)</sup>은 상이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7) 김창근. (2015). 상호문화주의의 원리와 과제: 다문화주의의 대체인가 보완인가? *윤리연구* 103, 183-214.

8) Mall, R. A. (2000). *Intercultural Philosoph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존재하는 연대적 공존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참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호 문화 철학은 문화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문화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의 철학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sup>9)</sup>.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은 상호문화적 해석학을 제안했다. 이것은 문화들 사이의 중첩(겹침, Überlappung)에 대한 유비적 해석(analogical interpretation)을 통해 보편성과 관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문화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유사성도 있어서 문화 간의 중첩을 통해 보편성을 찾아내고, 결국 모든 문화는 보편성이 서로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 논리학에서 삼단논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매개념(the middle concept)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인도식 오단 논법에 따르면 ‘산 저기에 불이 있다’는 명제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라는 근거를 들고, ‘연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다, 마치 부엌에서처럼’

9) 조해정. (2014). 말(Ram Adhar Mall)의 상호문화적 해석학과 문화적 중첩. *범한철학* 74(3), 501-531.

이라는 선례를 들어, ‘산 저기에 연기가 있으며 연기에는 항상 불이 따라 다닌다’라는 적용을 거쳐, ‘그래서 산 저기에 불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추론에는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논리적 사유 모델이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특징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상호작용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의 한계로 여겨지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이론이 한 집단의 문화를 고유한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관습으로 지켜지는 여성 할례, 일부다처제, 조혼 등은 여성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억압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특정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그 집단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도계 영국 철학자인 파레크(Bhikhu Parekh)는 ‘상호작용적 다문화주의(interactive multiculturalism)’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소수집단의 문화와 집단 정체성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관습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을 제정하여 비도덕적인 관습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문화적 관행을 허용할지 또는 금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기반이 되는 사회의 유력한 가치(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평등)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소개했던 철학자의 말과 유사하게 다원적 보편주의를 제안하는데, 상호 문화 간의 대화를 통해 보편적 가치들이 수렴되고,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들에 민주적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문화적 용광로

캐나다의 문화·예술 정책 활동가이며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을 주도한 게리 네일(Garry Neil)<sup>10)</sup>은 미국 역사에서 문화적 용광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0) Neil, G. (2022). Cultural Policies, UNESCO’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Multicultural Melting Pot. 문화 다양성축제 MAMF(맘프) 2022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창원대학교. (2022. 10. 21).

동화를 통해 동질적인 미국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전통·언어를 유지하는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많은 종족 집단들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통일된 사회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용광로 이론이나 다문화주의는 모두 신화에 불과하며,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모델은 ‘다문화적 용광로(multicultural melting pot)’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선주민과 이주민들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지만 상호작용하고 혼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네일은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문화 집단 간에,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예술적 표현을 공유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사회적 연속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라는 것이다.

네일의 다문화적 용광로 비유를 한국에 적용하면 앞서 언급했던 비빔밥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서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쌀밥과 고기, 나물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참기름과 고추장인데, 이것은 점성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흩어지기 쉬운 재료들을 접착제처럼 붙

잡아 준다. 더욱이 고소하고 매콤한 맛과 고운 색깔을 더해 준다. 이런 비유를 사회에 적용하면 참기름과 고추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화 간 공통점과 보편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중심으로 일치감과 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때 예술, 스포츠, 문화는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유희유와 같다. 예술 공연, 축제, 스포츠 행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 협력의 기회를 늘리고,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속력과 연대감을 키우는 기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선주민과 이주민, 다수자 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공동의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고 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조건이다.

##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조건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트로퍼(Harold Troper)<sup>11)</sup>는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적 이념, 인종·민족·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요소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혈통과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었던 사회에서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회 집단 간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화는 한 개인의 정체성의 근원이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본연적인 것이다. 이민자에게 주류 사회로의 편입을 조건으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

11)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In P. R. Magocsci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pp. 997-10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각자의 문화에서 신성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상대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를 놓고, 족발을 내걸고, 삼겹살 파티를 벌인 행동은 혐오 표현이다.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표현하더라도 무슬림 신도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다. 파레크가 말했던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핵심 가치(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 등)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거주국의 문화적 지식을 학습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술·스포츠·문화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접촉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편견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접촉 가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두 개의 집단이 공통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등한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고 한다<sup>12)</sup>. 이런 접촉 가설의 조건을 충족하는 좋은 사례가 남북 여성 합창단 ‘여울림’이다. 여울림이라는 이름은 ‘여성이 어울리며 노래하여 만드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의미이다. 이 단체는 남한 여성과 탈북민 여성이 합창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어 평화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연대체이다. 앞서 든 비빔밥의 예에서 참기름과 고추장이 윤희유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법으로 예술·문화·스포츠만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셋째,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생득적 특성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한 개인이 인종·성별·연령·지역·계층,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사회에 대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의 자기 개발 기회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각 개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혁신

---

12)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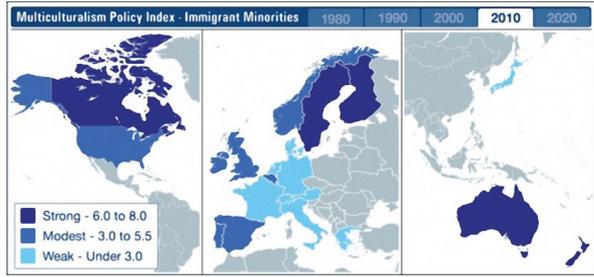
과 성장의 잠재력을 상실케 한다. 이런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지 문화 간 대화와 소통만으로 집단 간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민자와 소수자 집단이 안정된 생활과 평등한 기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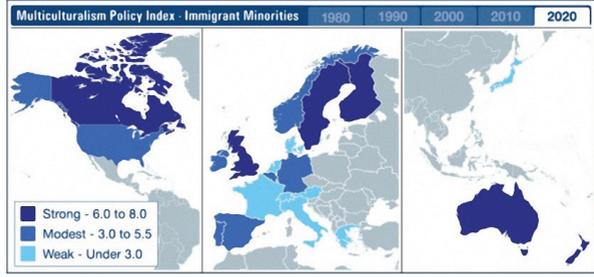
한 사회가 인종, 종족, 문화적으로 다양해질수록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준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여 주는 다음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서구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 왔다<sup>13)</sup>. 단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를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13) Kymlicka, W.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2010



2020

출처: Multiculturalism Policies in Contemporary Democracies<sup>14)</sup>

14) <https://www.queensu.ca/mcp/>

## 맺는말

현재 한국은 단일민족·단일문화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5%가량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외국인 주민, 귀화자와 그들의 자녀 등)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는 고립과 분열의 길로 가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개인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고,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민자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탈북민, 성 소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문화 심리 통합에서도 다문화

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획일성의 복제’가 아니라 ‘다름의 조직화’, 그리고 ‘획일주의’를 극복하면서 ‘연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



이주로 인한  
다양성과 정책적 대응  
그리고 환대의 윤리

## 이 병 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세계 질서를 뒤흔든 코로나19의 거대한 충격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해 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인구 이동을 규율하는 국경의 가시성은 지난 30년간 우리 삶에 스며든 세계화의 그림자를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국경 봉쇄, 여행 금지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쉽게 다른 나라를 방문해 왔던가를 반추해 볼 수 있었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을 목도하면서 다문화라는 이름하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돌아볼 수 있었다. 세계화의 한 요소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인 국제 이주는 수용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다양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 구성원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가치가 교류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표출된다. 다양성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sup>1)</sup>. 국제 이주는 초국가적 연결망을 통한 상호 의존성의 증대, 종족적 다양성으로 인한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종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화된 인종주의로 이어져 사회 응집력을 저해할 것인가?

---

1) 폴 콜리어. (2014). *엑소더스: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김선영 옮김). 파주: 21세기북스 (원서출판 2013).

## ■ 국제 이주의 영향

혹자는 현재를 ‘국제 이주의 시대’라고 부른다<sup>2)</sup>. 2020년 현재 전 세계 이주민은 약 2억 8,00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한다. 1970년에 약 8,0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이주민 수와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거주국을 떠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국제 이주의 시대’란 이주민의 양적인 증가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제 이주가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북미, 오세아니아, 서유럽 등을 넘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주의 패턴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이주는 중요한 글로벌 현상이 되었고, 국제 이주의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국제 이주가 국제정치 질서에 큰 충격을 가져올

---

2)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2013). *이주의 시대*(한국이민학회 옮김). 서울: 일조각. (원서출판 2009).

수 있음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시리아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의 여론을 움직였고, 유럽연합의 국가들로 하여금 난민 수용의 근본적인 기초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는 2016년 6월 ‘뉴욕 선언(The New York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난민 수용의 책임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뉴욕 선언은 2018년 12월의 유엔 총회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와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채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주와 난민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는 국제 이주가 동반하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유럽 내부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서 유럽 각국에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난민과 이민에 대한 담론이 빠르게 안보화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서 반이민과 반난민을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였다. 국제 이주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포퓰리즘의 부상 속

에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브렉시트로 이어졌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데에는 지속적인 반이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난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국제 이주는 중요한 국내 정치적 변동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sup>3)</sup>.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이 이민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 이주는 이민 수용국에 어떻게 국경을 통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국가가 질서 있는 이민정책을 통해 국경 통제를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많은 수의 미등록 이민자가 체류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행정적 부담과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경 통제의 실패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이민 개혁의 지체로 인해 약 1,10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민자가 존재하는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 나아가 국경 통제와 관리는 국민국가의 주권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 이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압력은 이민 수용국에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국제 이주가 이민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은 종족

---

3) 이병하. (2020).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 *담론201*, 23(3), 73-111.

적 다양성을 어떻게 통일성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즉 어떻게 외국인과 이민자를 통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이민자 통합의 문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민자가 수용국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교육과정에서 뒤처지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이민자들은 사회복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내국인과 이민자 간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재분배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이주는 이민 수용국에 어떻게 국가의 성원권(membership)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겨 준다. 국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수용국의 정치사회 공동체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난해하게 만든다. 성원권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이는 국가 정체성, 사회 정체성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 이민·난민 이슈의 안보화

국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를 수용국 사회의 집단 정체성 위기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 난민 이슈의 안보화이다. 안보화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의제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은 그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였고,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였다. 국제정치학의 한 분과인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 영역과 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회 안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 안보는 한 사회가 변화하는 조건과 위협으로부터 본질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민족적 정체성이나 언어·문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사회 안보는 이주와 난민과 같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사회 정체성의 변화 및 그 변화로 인한 위협 인식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코펜하겐 학파에 따르면 안보는 일종의 화행(speech-act)이다. 특정 이슈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다면 그 행위 자체가 안보라는 것이다. 국제 이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다양성의 증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위협으로 인식되고, 그 위기적 속성을 이슈화하는 것을 안보화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리더, 정당, 관료, 압력 단체 등 안보화 행위자들은 이민과 난민 이슈를 사회 정체성의 생존 문제로 정의하고, 그 위협의 실체를 구체화하며, 위협이 가진 긴급성을 부각함으로써 극단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안보화 행위자의 이러한 화행은 그 자체로 안보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 즉 안보화는 안보화 행위자, 안보 대상 그리고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및 난민과 테러리즘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담론이 대표적이다.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같은 대규모 인구 이동의 경우 안보화 행위자와 대중들로 하여금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입국한다면 여기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더욱 많이 갖게 함으로써 안보화를 촉진할 수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애국법과 신분 증명법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일부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를 배제하려 하였고, 특히 중동 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신청자들을 잠재적 테러

리스트로 인식하여 테러리즘과 무관한 사람들의 난민 신청도 미국을 향한 공격 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sup>4)</sup>. 영국도 9·11 이후 난민 신청자와 테러리즘의 연관성을 부각했고, 난민 신청을 테러리스트 공격을 위해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반테러리즘, 범죄 그리고 안보법을 통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난민 신청으로부터 차단하고, 이러한 신청자들의 지문을 10년간 보관하게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난민 이슈와 테러리즘을 연결한 바 있다.

---

4)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195-230.

## 이민자 사회 통합

주요 이민 수용국들은 지속적인 국제 이주의 흐름 속에 이민자 2세대, 3세대의 등장과 같은 이민자 사회 내부의 다양성 증가, 이민자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이민자 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주와 난민 이슈의 안보화, 수용국 사회의 반이민정서 속에 이주로 인한 다양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 응집력 약화를 방지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사회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 수용국은 특정 방향으로 이민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 정책을 유형화하자면, 흔히 ‘구분 배제 모형(differentiated exclusionary model)’, ‘동화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배제 모형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는 특정 산업 분야에 한해서만 수용하며, 이들에게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 인력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화 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

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대표적인 것으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인종·종교 등에 상관없이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시민권 모델을 지향한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집단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여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 간의 공존을 추구한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정책을 시행할 때 이민자를 한 개인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때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의 문화는 모자이크의 조각들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 캐나다는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Canadian Mosaic(2017)  
출처: Tim Van Horn Facebook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는 또 다른 모델이 ‘시민 통합(civic integration)’ 모형이다. 시민 통합에 기반한 이민자 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 모델이 이민자 ‘집단’의 수준에 기초한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반해,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 적응할 책임을 ‘개인’에 지우고 이민자 개개인이 수용국 사회의 언어·역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민자가 수용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수용국 언어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일정 시일 안에 언어 교육, 사회 교육, 직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해 이수 과정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민자가 수용국의 노동시장에 통합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 통합 정책은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시민 통합 정책의 새로운 점은 강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이며, 이민정책의 양대 요소인 이민 통제와 이민자 통합 측면이 융합되어, 이민자 통합 정책이 이민 통제 요소를 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정책도 시민 통합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다양성이라는 담론은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논란이 되면서<sup>5)</sup>,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다분히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대상 집단의 문화적 권리와 이민자에 대한 집단적 접근이 비판받으면서 다양성 정책은 정책 대상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고, 이민자와 내국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이민자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한 개인은 이민자일 수도 있지만, 성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체성을 교차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6)</sup>.

---

5) 로지타 피비안핀 미트빈엔-패트릭 사이먼. (2020). *이주와 차별* (설동훈 옮김). 전주: 신아출판사. (원서출판 2021).

6) Schiller, M. (2016). *European Cities, Municipal Organizations and Diversity: The New Politics of Difference*. London: Palgrave Macmillan.

## ■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 정책과 과제

우리에게 국제 이주, 난민, 다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민 후속 세대에 의해 창업되었다는 소식, 내전·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행렬, 이주민에 의한 일련의 테러와 범죄를 뉴스에서 접하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남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우리의 문제로서 난민 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들의 등교 금지,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가 진정 다양한 문화 및 정체성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반추하게 한다. 한국 내 외국인 인구가 1백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15만 명으로, 이는 총인구 대비 약 4.1%이다. 숫자를 넘어서 대중매체에 통상적으로 재현되는 농촌의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좀 더 가까이 대학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학생

들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바야흐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재중 동포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그 이후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결혼 이민 등 다양한 이주 패턴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문화적 현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글로벌한 현상인 국제 이주의 압력으로부터 무관한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국제 이주가 동반하는 다문화적 현실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변동이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민정책은 인구정책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민정책의 기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서 2029년부터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67년이 되면 -1.26%의 인구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어 2017년 77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827만 명에 달해, 2017년 13.8%였던 고령 인구 비율이 2076년에는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비해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의 3,757만 명에서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 부양비, 즉 고령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비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를 위시로 한 국가 재정 구조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다<sup>7)</sup>. 이 때문에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활용하여 인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담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이민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의 본격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론의

7) 설동훈. (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사회 통권*, (106), 73-114.

변화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1년과 2012년에는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4.2%, 70.1%였으나, 2013년에는 이러한 견해가 67.5%로 하락하였다.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과 2012년의 25.8%, 29.9%에서 2013년 32.5%로 증가하였다. 2010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사회적 가치를 어지럽힌다는 의견에 동의한 20대는 13.3%로 60세 이상의 18.8%보다 낮았으나 2013년에는 20대의 31.3%가 이에 동의하여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하였다. 2015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2%였고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8%였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민정책의 근본 기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추진해야 하고, 특정 이민자 집단에 한정된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로 인한 다양성 증가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후발 이민 국가로서 국제 이주의 영향력에 대해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사

안별, 이주민 집단별, 부처별 단기적 대응이 축적된 것이다. 이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이민의 일반적 패턴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기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맞게 파편화된 법제와 정비를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이민 개방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력 수급, 국제결혼 위주의 제한적인 이민 수용을 유지할 것인가, 이민 문호를 개방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민자를 선별하여 수용할 것인가,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어떤 모델에 기반할 것인가, 현재의 선별·동화·온정주의를 넘어서는 모델은 무엇인가 등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로 인한 다양성을 관리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 체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 중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의 부처가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들도 부분적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로 업무 영역이 나뉘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활

용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건설적 분절화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경쟁은 부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이민자 통합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정책 영역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서 취약하다. 이민정책에 있어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인 지역사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상이한 추진 체계와 유사 사업 중복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면서 이민자의 실생활에 맞는 이민정책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민정책 전문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주 다양성과 도시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다. 물론 경제적인 요건, 인구학적인 상황에 따라 도시나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민자들의 체류 조건, 시민권 요건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 특히 주거·보건·교육 등의 문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인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국가 수준의 이민정책 목표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정책 사이에 간격이 생겨나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 수준의 이민정책과 지역 수준의 이민정책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통일성과 지역 수준의 다양성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민자들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적 맥락의 이민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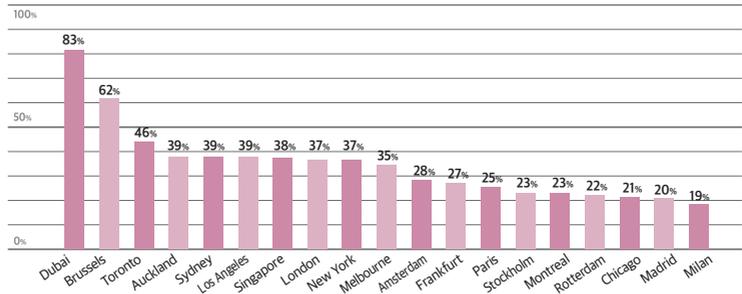
주하고 있으며, 현재 약 39억 명인 도시 거주 인구는 2050년에 6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이주는 이러한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심화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을 보여 준다. 두바이, 브뤼셀 등은 예외로 하더라도 런던,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시드니 등의 도시는 30% 후반에 해당하는 이민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은 이들 도시가 위치한 국가의 평균 이민자 비율을 훨씬 상회하며, 많은 이민자들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캐나다 이민자의 46%가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이민자의 40%가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으며, 호주 이민자의 28%가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다<sup>8)</sup>.

---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5). *World Migration Report 2015*. Geneva: IOM.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



출처: IOM, 2015

앞서 소개한 시민 통합 모델과 다양성 정책이 이민자 개인의 참여와 수용국 사회와의 쌍방향적 교류, 소통, 공유를 강조한다고 볼 때, 도시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 외국인 집단이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도시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 간의 접점을 제공하기에 이민자와 외국인 집단을 추상화하여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적 고민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이민자 통합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면, 도시는 이민자와 외국인 집단 및 내국인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류한다는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상호 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 문화도시는 다인종 도시가 다른 국적, 언어, 종교, 문화 등을 가진 다양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하며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공유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 금지, 평등 보장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된다. 정책 추진 체계 면에서도 시 정부는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문화 간 교류와 공유를 촉진하려고 한다. 코펜하겐은 'We Are Copenhageners' 캠페인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공동의 기본 가치 공유를 추구하면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뉴욕시는 높은 이민자 인구 비율에 맞게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민자 리더십 양성을 통해 이민자 통합에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 정책에 있어서 그 흐름이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단순한 공존에서 이민자 개인의 참여와 소통, 공유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 집단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도시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기반 속에 이루어지는 문화 간 공유를 통해 이주로 인한 다양성을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함으로써 벽과 경계를 만드는 다양성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접촉 지대를 넓히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다양성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응집력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 ■ 환대의 윤리

지금까지는 이주로 인한 다양성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을 마주하는 윤리적 태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흔히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윤리는 친구와 적, 주체와 타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를 숙고한다. 이 점에서 환대의 윤리는 이주로 인한 다양성 시대에 타자, 경계인,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해 준다. 국제 이주의 영향력 증가, 이로 인한 다양성의 증대와 사회적 응집력 약화와 같은 도전은 정치학으로 하여금 타자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 타자, 경계인, 이방인은 쉽게 국가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가 증가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출신국 혹은 수용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수록 주체와 타자, 주인과 손님,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에 대한 고민은 정치학의 새로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을 부여하는 환대 개념은 국제 이주와 난민 문제를 성찰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손님이 내 집의 문밖에 서서 내 집에 들어와 살기를 청하고 있다. 주인인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밖의 손님은 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는가? 나는 손님을 초대할 적이 있는가? 손님은 내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아닌가? 나는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환대했을 때, 손님이 내 집을 차지하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많은 이주민, 난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찾아 혹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타국의 문턱에 서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환대 개념은 이러한 질문을 숙고하기 위해 유용한 이론적 도구이다. 환대는 주인이 손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 안에 있는 주인이 ‘문턱을 사이에 두고’ 문밖에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라는 개념 속에는 주인과 손님, 주체와 타자라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들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자들의 관계는 문, 문턱, 집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또한 환대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매일 매일 벌어지는 행위일 수도 있고, 개인적 수준의 환대는 지역 공동체, 국가, 국제 수준

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에게 환대 개념은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으로 친숙하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환대는 이방인이 누군가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했다. 환대가 손님에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주인 역시 어떤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주인과 손님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로 경계와 영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칸트의 환대 개념은 조건적이다. 조건적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게 “내 집처럼 편안히 쉬시길. 그러나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반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무조건적 환대를 말한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내 집을 열어 손님에게 공간을 내주는 것으로, 권리로서의 환대와 단절을 통해 주인과 손님,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다. 무조건적 환대는 주인과 손님 간의 호혜적인 관계는 물론 손님이 적대적으로 변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는 가능한가?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베풀면 주인의 주권성이 소멸되어 결국 환대를 베풀 공

간인 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환대를 지향하다가 환대 자체를 위한 공간과 수단이 사라지면서 필연적으로 환대는 조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테리다는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불가능한 것을 왜 말하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 환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좌절하는 대신, 무조건적 환대는 조건적 환대와 서로 환원될 수 없지만,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고,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 가는 것이 환대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환대는 아직 오지 않은 환대라는 점에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환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환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초대받은 손님을 관용하는 것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 하지만 환대의 윤리는 끊임없이 그 사이의 강을 건너라고 요구한다.

국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는 초대받은 선량한 이주민만을 관용하고 이들을 국익을 위한 자원이자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환영한다. 그렇지 않은 이주민은 불량하고 위협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집단적 이방인으로 분류하여 배제하고 차별한다. 설령 그

들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교류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 환대 개념은 주인의 위치와 손님 위치를 바꿔 보고 집과 밖을 넘나드는 문지방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주인과 손님, 선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위치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를 느껴 보라는 것이다. 환대가 잘 드러나는 지점은 경계를 넘나드는 문지방이고, 이 문지방은 이것과 저것이 분리되는 공간이자 이것이 저것으로 되는 지점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환대의 실천을 통해 이민 수용국의 국민들은 이민자의 위치에 서 보기도 하고, 이민자는 수용국의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 위치에 서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제 이주는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이 아닌 ‘이것과 동시에 저것(both/and)’일 수 있으며, 국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은 수용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줌으로써 주인과 손님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각자 상생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 ■ 나가며

국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와 타자가 주인과 손님으로서 서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성찰하게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그리며 살아간다. 출신 지역, 학교, 소속 학과 등 선명한 선 안에 거주함으로써 우리는 심리적 안도감과 안정된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한다. 아마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민족, 국민일 것이며, 우리와 구분된 존재들을 선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우리는 보다 단일한 우리가 되고,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주변인들에게는 우리 아니면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국제 이주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는 계속 선명한 선을 살짝살짝 지워 갈 것이고, 이에 대해 주류 사회가 보다 진한 펜으로 굵은 선을 그려나간다면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짐멜(Georg Simmel)이 말하듯 이방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유

형의 이방인으로 상상된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과 그들’로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다양성과 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과 백인의 사진을 피실험자에게 보여 주면 피실험자는 인종으로 먼저 사진을 구분한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에 유니폼을 입히면 인종으로 구분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sup>9)</sup>. 타자를 상상하는 다양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를 바꿔 보고 분명한 선과 경계를 넘나드는 환대의 윤리 역시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이를 통해 문지방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우리 사회의 그들처럼 되어 본다면 그들을 다른 민족, 비국민이 아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으로 대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선 안에서 선 밖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아시아인 차별에 분노한다면, 아시아인이라는 단어를 ‘이주 노동자’, ‘난민’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한다. 경계 밖으로 나가 보거나, 경계 안에서

---

9) 김지윤. (2020).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선 밖의 사람들을 사유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나를 대입해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  
는 태도일 것이다. ✧

##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UC, Santa Barbara 아시안 아메리칸학과 조교수로 재직했고 재외한인학회, 북한이탈주민학회,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사회심리학, 국제 이주, 이민정책, 재외한인, 사회갈등과 갈등 해결이다.

##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민정책, 이민과 난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2020),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등장: GCM 사례를 중심으로」(2019),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2018) 등이 있다.



##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연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려난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라도 관청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태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꿰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은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툰: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철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립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교운
- 20호 사회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해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이이현

21호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_ 백창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_ 안병일

22호 Behind the scenes:  
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 조사와 보고 \_ 김채연  
다양성(Diversity)으로의 변화,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라 \_ 양윤재

23호 조선 시대 궁중 회화의 다양성:  
조선 후기 궁중의 그림 병풍과 이국 취미 \_ 윤민용  
사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세 가지 시선 \_ 신수진

24호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_ 김정일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_ 진은숙, 조은아

25호 4차 산업혁명의 요람에서 만난 다양성 \_ 김서경  
자기다움과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공감 교육 \_  
박보애, 서현선, 신현상

26호 영시(英詩)가 전하는 다양성의 가치 \_ 장성현  
러시아 문학, 다양성으로부터의 가치 \_ 최정현

27호 다름을 마주하는 용기:  
데이터주의 시대, 다양성과 어울림의 의미를 묻다 \_ 신은경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소고 \_ 조은주

28호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_ 김승섭

29호 기업은 왜 다양성이 필요한가? \_ 심영환  
나의 세상을 부정하는 용기 \_ 홍지민

30호 잃음의 인과:  
다양성에 대한 어느 문화예술인의 소회 \_ 안재우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혐오입니까?:  
루소포비아를 다시 생각한다 \_ 이지연

31호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한다 \_ 김신곤  
아름람 이야기 \_ 전우택



KU Diversity



<https://www.diversitas.kr>

## Diversitas

권호 32호  
발행일 2023년 1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http://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